

포천시수영연맹 김종국 회장 就任 스포츠맨 정신으로 '수영발전도모'



포천시수영연맹은 지난 16일 김종국 회장에 대한 취임식 행사를 마련했다.(왼편은 김종국회장)

포천시수영연맹은 지난 16일 여성회관에서 포천시수영연맹 김종국 회장에 대한 인준서 전달과 부회장 및 감사, 이사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취임식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취임식은 포천시체육회장인 박운중 포천시장과 임희동 포천·연천법원장 등의 내빈과 체육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취임식과 만찬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 포천시체육회장과 포천시의회회의장 표창을 고순식씨와 박운철씨가 받기도 했다.

김종국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금까지 포천의 체육발전에 힘써주는 체육인들과 종목별회장들의 화합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며 "스포츠맨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수영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영연맹회장으로 취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동호인 및 체육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위촉장은 포천시수영연맹의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고문 차태남(포천중 교장) ▶회장 김종국(성원건설 대표) ▶부회장 김성태(청명스포츠센터 대표), 고순식(경기일보 기자), 심유명(G.월드스튜디오 대표) ▶감사 이양택(신만중원 대표), 김진욱(한남부어 대표) ▶전무이사 박운철(포천스쿠버다이빙스쿨) ▶이사 김한근(포천건축설계), 백영희(대림 대표), 강대권(경남모직학생복-노라노), 황보 걸(안경나라 대표), 이미용(서울우유 대리점), 고경자, 김경연(조선일보 포천지국), 구은서(우) A마트 이사)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의정부시, 명실상부한 '빙상의 메카'로 자리 매김

의정부시는 지난 17일 김문원 시장, 이창모 시의회의장, 도체육회 및 빙상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빙상선수단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수단은 관내 빙상 꿈나무들을 지도·육성하여 국가대표 선수를 비롯한 우수 인재들을 배출한 20년간의 지도력을 갖춘 백철기 감독을 중심으로 스피드선수 3명(서대일, 최근원, 이종우)과 쇼트트랙선수 1명(조항민)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금번 빙상선수단 창단으로 세계정상급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한 의정부시는 지난 2003년 9월 40만 시민의 열원인 실내빙상장을 경기 북부 최초로 건립한 물론 명실상부한 빙상의 메카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의정부시는 지난 17일 시 및 빙상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빙상선수단 창단식을 개최했다.

인터뷰 3 포천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신건배 회장

댄스스포츠 定着과 지역사회 봉사에 매진

2004년 4월 6일 창립식을 갖고 출범한 포천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은 2005년을 댄스스포츠의 보급과 정착을 위한 토대로 삼기 위한 해로 삼고 있다.

포천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은 중앙연수원(포천시 신원동 219-9 회연빌딩 B)을 중심으로 동호인 60여명이 댄스스포츠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포천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초대회장으로 취임, 댄스스포츠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건배(58·사진) 회장을 만나 연맹의 발전상을 들어보았다.

신 회장은 "처음 5년 정도는 댄스스포츠를 좋아하는 동호인으로 활동하다 포천시로부터 회장직을 맡고 수락하게 되었다"며 "댄스스포츠는 무엇보다도 생활의 활력을 줄 수 있는 종목이고 동시에 청소년들에게는 대학 진학 등 진로선택에도 활용될 수 있어 가능성을 보고 시작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은 한국댄스스포츠진흥원은 포천연수교육원 이병기 대표의 23명이 맡아 총회에서 신 회장을 연맹회장으로 추대하고 이병기씨를 전무이사로 선임해 출범했다.

출범 첫해인 지난해 10월 9일에는 제1회 포천시장애인 아마추어댄스스포츠경기대회를 포천에 유치 2천여명의 선수 및 관람객이 참여한 전국규모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긴 했지만, 출범 첫해인 만큼 시행착오가 많았었다"며 "댄스스포츠의 정착을 위해 관내 댄스스포츠 전문인과 선수양성 등이 시급하며 보급에도 더욱 정진해야 한다"는 신회장은



신건배 회장
 포천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꿈나무 양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댄스스포츠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본다.

"댄스스포츠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시작단계지만 전국 대학에 과가 개설될 정도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며 "어린 꿈나무들이 시작을 한다면 중·고·대학진학과 사회생활에 있어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학교관계자들이 지금보다 많은 관심을 통해 보급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더욱 빨리 보급과 발전이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포천시댄스스포츠연맹은 엘리트체육인 양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신 회장에 따르면 "이병기 전무를 위시한 동호인들이 2002년부터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관내 자혜원과 가평 꽃동네 위문공연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출범이후에도 지역 댄스스포츠 문화 정착과 더불어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활력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봉사의 실효를 위해 봉사자들의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댄스스포츠 봉사팀과 더불어 함께 할 지역 봉사자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연맹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선수발굴과 육성을 통한 각종 댄스스포츠대회 출전 및 유치,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댄스스포츠연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에 관심을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중앙연수원에서 연습중인 포천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소속 어린 꿈나무들과 함께한 신건배 회장과 중앙연수원을 운영중인 이병기 전무.

탐방 지역체육회 ③ 포천동 체육회 회장 이성노

동호인 中心의 체육회로 전환



포천동 체육회 운영의 내실화에 주력하는 이성노 회장.

1993년에 결성된 포천동 체육회는 포천의 중심지답게 축구와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등의 각종 동호회가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제6대 포천동 체육회장에 취임해 포천동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성노(57·사진) 회장으로서는 포천동체육회의 현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성노 회장은 포천동체육회를 초창기부터 관여해오고 있으며, 포천시축구

연합회회장과 포천동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포천의 체육발전에 기여해 오기도 했다.

포천동체육회는 이성노 회장을 중심으로 ▶김종기 수석부회장 ▶이운영, 김종국, 김영동, 강명호 이상 4명의 부회장 ▶변하범, 정관진 이상 2명의 감사 ▶이기선 사무국장 ▶김부일 총무 등 임원진과 20명의 운영위원, 100명의 이사진이 포천동이나 포천시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회장은 "포천동 체육회는 변화되는 체육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젊은 연령층을 전면에 포진시켜 조직했다"고 말했다.

또 포천동체육회의 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포천동체육회는 축구와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동호회가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 밖의 종목들은 대

회합에서 각 마을 통장이나 종목별 체육회장들의 추천으로 조직된다"고 밝혔다.

특히 "축구는 선단동과 함께 교류하고 있는 종목으로 선단동 팀을 포함 11개 팀이 활동중이다"고 덧붙였다.

포천동 체육회는 효율적인 체육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 및 운영위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은 "과거에는 기부금이나 찬조금이 체육회에 있어 중요한 예산 중 하나였다"며 "최근에는 그로 인한 부정 등의 폐단이 있어 깨끗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로부터 연회비 20만원씩을 받아 체육회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체육회를 운영하기란 쉽지않은 일이라고 한다.

"시에서 작년까지 3백만원의 지원금이 있었으나 올해는 2백만원으로 금액이 하향 조정된 것도 문제지만, 10여개가 넘는 일년의 각종 대회 참가 지원을 하는 만큼 포천시의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천동 체육회는 앞으로 동호인 중심의 체육회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 회장은 "동호인 중심의 체육회로

전환하기 위해 종목별 체육회장을 선출했다"며 "이는 시합시 선수선발 등 일체의 모든 경기참가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하고 체육회는 예산과 행정적 업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구성돼 있는 이사진이 각종 회의의 시급적인 지원과 참여를 할 수 있게 재구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지역체육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동호인들의 각종 요구사항을 조정하는 것이다"며 "체육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작은 애로사항들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한편 포천동 체육회는 회원 상호간 이해와 협조를 최선의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이 회장은 "친선도모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을 하계수련대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위해 수련대회 등 개최하겠다"고 약속하며 체육회가 생활체육인들을 지원하는 본연의 목적과 회원간 화합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 생산품목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커피봉투류, 각종 호일팩류,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뉴시용품 포장지류

★ 용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 가공제품

스텐당심방, M자기공, 스텐당지퍼, T자기공, 지퍼삼방,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포장기 생산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풍산그라비아는 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00-4 / 전 화 : (031) 536-3531 / 팩 스 : (031) 536-3530 / H · P : 011-279-4002 / 대 표 : 최 정 택